

# 영호남 6개 시도지사 달빛내륙철도 건설 공동 호소문

경남 거창서 긴급회동

대통령 공약, 미반영에 실의·충격

경제논리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

국가계획 반영 대통령 결단 호소

광주·대구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 6명이 단결된 영·호남을 잇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공동으로 호소하고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 등 영·호남 6개 시·도지사는 28일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만나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공동호소문 발표에는 이용섭 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송상락 전남도행정부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호소문에서 "우리 시대의 여전한 숙제이자 난제인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빠진 것에 대해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영호남 지역의 민심을 전달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발전 격차와 지역 간 갈등 때문에 막대한 사회 경제

적 손실을 치르고 있으며, 그동안 정지권의 이해관계로 수십 년간 분열하고 갈등한 탓에 영호남을 잇는 철도의 비용 편익(B/C)이 높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호남고속철도의 B/C도 논의 당시엔 이보다 낮게 나왔다"면서 "달빛내륙철도는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 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철도와 관련한 영호남 거주 인구만 해도 970만 명에 이른다는데서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 통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 온 대통령께서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결단해 주시길 은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달빛내륙철도 건설 반영을 위한 호소문 낭독에 이어 6개 시·도를 상징하는 6가지 색으로 '비상을 꿈꾼다'라는 소망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힘차게 날리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영호남 6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를 계기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 나가기로 다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계획으로, 국토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초안에는 '달빛내륙철도'로 불리는 '광주~대구선 철도사업'이 신규사업에서 빠져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호남 6개 지역 시장·도지사 등 참석 내빈이 28일 오전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공동 호소문 발표'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윤병태 전남도 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10년간 2000억 지방비 지원 받는데...

### "한전공대, 지역인재 전형 반드시 도입돼야"

5월 신입생 모집 요강서 빠질 듯

이혁제 도의원 전남도 대응 촉구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지역인재 전형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모두 2000억원을 대학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지역인재 전형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수가당에서 주장하는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혁제 의원(목포4)은 28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한전공대의 지역인재 전형은 특혜가 아니다"며 "전남도가 한전공대 입시요강에 지역인재 전형이 포함되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전형은 보수가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의 기울어진 지방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동등한 기회를 지방 학생들에게 주자는 취지"라며 "지역인재전형 등을

도입하지 않고 교육 불평등 여건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전남도와 나주시가 매년 각각 1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을 대학 운영비로 지원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전남도가 더욱 강하게 지역인재 전형 도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한전공대 측은 오는 5월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앞두고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인재전형 도입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올해 제도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을 보가면서 지역인재 전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단 설립추진 위원장은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지역 특례 입학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인재 전형은 없다"고 밝힌 이후, 지역인재 전형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전공대와 유사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최종후보 3인에 이성운 지검장 포함되나 촉각

오늘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

김오수·양부남·구본선 급부상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이하 추천위)가 누구를 추천할 지 최종 후보군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여전히 총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이 지검장 대신 다른 주자들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압축한다. 법무부는 최근 추천위에 국민 천거를 받은 인사 14명의 명단과 기초 자료를 넘겼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 동의를 철회한 이들은 최종 심사 명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 중 3명 이상을 골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이 이들 가

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최대 관심은 3명 이상의 후보군에 이성운 지검장이 포함되느냐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될 상황에 처해 있다. 게다가 그동안 주요 수사에서 정권에 코드를 맞춰 검찰 내부의 신망도 두텁지 않다. 이 같은 리스크로 이 지검장을 총장에 앉힐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선배 기수를 총장에 앉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오수 전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등이 급부상하고 있다.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으로 손발을 맞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9년 10월 사퇴한 뒤에는 80여일 동안 장관 직무대행을 했다. 검찰을 떠난 뒤에는 청와대가 감사위

원 후보로 밀기도 했다.

담양 출신에 특수통으로 꼽히는 양 전 고검장은 2018년 강원랜드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채용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의 외압 의혹을 놓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등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구 고검장은 인천 출신으로, 지역색이나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이다.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로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전북 남원 출신인 조 차장검사는 현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직폐청산 TF 팀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추 전 장관 시절 검찰국장을 지내고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대검에서 윤 전 총장 참모로 일하면서 추 전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기업 해양에너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제는 지붕도 임대!

> 건물/창고 지붕에 태양광 설치 임대를 통한 부가수익 창출 <

사업모델



기대효과

- ✓ 유휴부지 활용 추가수익 창출
- ✓ 기존시설 현황 점검 및 안내
- ✓ 사업기간 종료 후 태양광설비 취득
- ✓ 친환경 녹색기업 이미지 효과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 광주광역시 RE100 에너지 유관기관

문의: 062)950-2869 / www.hyenergy.co.kr "해양에너지 SNS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